

저는 현재 GBC 미주복음방송에서 진행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65 묵상집], (지은이 :이범의,이대경, 이효재) 을 사용하여 2 분짜리 유튜브 영상과 쇼트를 만드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두아들, 두며느리, 손녀를 두고 있구요. 작년에 은퇴한 남편과 라크라센타 지역에서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전 대한항공에서 스텝으로 4 년 6 개월 근무했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내가 교육받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고 학원에 시달리는 아이들, 사교육비 부담, 과열된 입시지옥, 주입식교육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싶지 않았고, 세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경험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고, 교육, 선택의 기회가 많은 큰 땅, 미국에서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싶어서 이민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2001 년 7 월 4 일 미국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후배에게 LA 천사라고 불리운다는 박승목, 박영자집사님을 소개받고 두분을 따라 나성 영락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림형천 목사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표어로 지역사회에 교회 존재이유를 나타내는 많은 사역들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큰아들이 당시 고 1 학년이였기에 교육부 PTA 회장을 맡게 되어 매주 아이들 밥퍼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가끔 여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이야기 해주었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걸 보면서, 상담공부를 하면 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등부 학부모로 만난 부목사님 사모님이 신학을 하신 분인데 나에게 공부를 권유했습니다. 4 년이 지나 교육부에서 목양부서로 옮겼고, 구역장이던 남편을 도와 구역을 활성화시켜 여러개의 셀로 나뉘는 최초 롤모델구역이 되어 남편이 대예배시 간증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전도를 잘한다고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었구요, 때마침 같은 아파트 옆집에 친하게 지내시던 목사님도 제게 공부하면 좋겠다고 권유해주셨는데 그것이 두번째였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3 번 컨펌을 받아야 확실한 응답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번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8 천여명이나 되는 큰 교회인 영락교회 담임목사님이 나같은 평신도 집사가 뭐라고 신학 공부를 시킬리 없다는 것, 그럼에도 만약 그런일이 생긴다면 그건 100 %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림목사님으로부터 3 번째 컨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던 차, 한국에 있는 여 조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면서 환경이 열렸습니다. 최종 남편에게 마지막 허락을 받고, 생명의 삶으로 매일 큐티를 하면서 월드미션을 본 기억이 나서 본교를 두드렸고 온라인으로 한 두 과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013 년 M.DIV 목회학까지 하게 되면서 교회사역도 시작하게 되어 2 년 사역후, 본교 총학생회장을 권유받아 교회사역을 사임하고 신학교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1 년후 임기를 마치고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잠시 근무했다가, 다시 교회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혀 인맥이 없는 미주복음방송국으로 보내셔서 2021 년 8 월부터 아나운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의 은사 중 하나인 넷트워킹 은사를 아시고, 그 안에 있는 귀한분들을 모시고 삶과 사역을 나누는 생방송 인터뷰 방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중간 중간 우리 학교 출신 동문 목사, 전도사, 선교사, 집사님들도 출연하여 펜데믹 중에도 활발하게 사역하는 현장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 사역, 2009 년 출판된 [잠언 365 묵상집], (지은이 : 이범의, 이대경, 이효재) 을 사용하여 2 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즉 말씀이 이끄는 삶의 변화를 위한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매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일임을 알기에, 그런 귀한 사역에 저를 불러주셨듯이, 앞으로도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